



HOME > 지역 > 충남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운영대의 원회의 '폭 넓은 논의 및 농어촌 발 전에'

양한우 기자 | 승인 2022.07.07 13:53 |
12면

[공주]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조성명)는 운영대의원과 담당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 넓은 논의 및 농어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영농편익에 기여하고,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 운영현황 보고와 농업기반시설 관련 사업, 통합물관리 대응방안 등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현안사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

운영대위원들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대책과 안전영농을 위하여 토의 및 질의의 시간을 가지고, 지역농업인을 대변하여 대의원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 농업 발전방향과 지역주민 숙원사항 등을 건의했다.

조성명 지사장은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는 운영대의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안전영농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주시 농업발전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조성명)는 운영대의원과 담당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 넓은 논의 및 농어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사진=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제공



양한우 기자 yhwseoul@daejonilbo.com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